

河南 德豐-廣岩淨水場間 道路 擴·鋪裝工事區間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金武重·丁海得
俞炳隣·高在塔

2000

河 南 市
京畿文化財團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표지사진 :

조사구간 항측사진(1975년 촬영)

目 次

I . 머리말 1

II . 周邊環境 3

1. 自然·地理的 環境 3

2. 考古學的 環境 3

III . 調查內容 6

1. I 區間 6

2. II 區間 9

3. III 區間 17

IV . 맺음말(調查團 意見) 18

圖面目次

圖面 1. 調查地域 位置圖 2

圖面 2. 周邊遺蹟 分布圖 4

圖面 3. 調查現況圖 7

圖面 4. I 區間 現況圖 8

圖面 5. II 區間 現況圖 10

圖面 6. II 區間 收拾遺物 11

圖面 7. III 區間 現況圖 15

圖面 8. III 區間 收拾遺物 16

사 진 목 차

사진 1.	I 區間 全景	23
사진 2	I 區間 近景	23
사진 3	I 區間 全景	24
사진 4	I 區間 近景	24
사진 5	I 區間內 “춘궁리궁지” 標石	25
사진 6	II 區間 全景(1)	25
사진 7	II 區間 全景(2)	26
사진 8	春宮洞 遺物散布地 1 全景	26
사진 9	春宮洞 遺物散布地 1 收拾遺物(1)	27
사진 10	春宮洞 遺物散布地 1 收拾遺物(2)	27
사진 11	春宮洞 遺物散布地 2 全景	28
사진 12	春宮洞 遺物散布地 2 收拾遺物	28
사진 13	春宮洞 遺物散布地 3 近景	29
사진 14	春宮洞 遺物散布地 3 遺物露出 狀態	29
사진 15	春宮洞 遺物散布地 3 收拾遺物(前面)	30
사진 16	春宮洞 遺物散布地 3 收拾遺物(後面)	30
사진 17	III 區間 全景	31
사진 18	廣岩洞 遺物散布地 全景	31
사진 19	鄉校고개 全景	32
사진 20	廣岩洞 遺物散布地 收拾遺物	32
사진 21	金厚令 墓域 全景	33
사진 22	金厚令 墓標	33

I . 머리말

금번 조사대상지역을 포함한 서울의 남동부 지역과 하남시 일대는 고대이래 한강유역에서 주도적인 역사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지녔던 지역이다. 조선시대의 『靑丘圖』, 『大同輿地圖』, 『大東地志』 등의 각종 지리지에는 광주부 고읍으로 기록되어 왔다.

특히 이성산성을 포함한 춘궁리 일대는 다산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과 千寬宇, 李丙燾, 尹武炳, 金龍國에 의해서 백제 하남위례성으로 비정되어 왔으며, 6세기 중엽 신라(新羅)가 신주(新州)를 설치한 이래,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주(漢州), 한산주(漢山州) 그리고 고려시대에 광주로 개칭되어 지방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경상도 방향으로 통하는 6대 대로(大路)상에 위치하여 덕풍역(德豐驛) 등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최근 하남시는 시내와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덕풍~광암정수장간 도로와 상일IC에서 하남시가지로 진입하는 우회도로의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던 중 문화재보호법 제74조 2에 의거 동 공사구간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여 음에 따라 2000년 5월 19일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도면1)

조사 결과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보고되었던 유물산포지 6 외에 새로이 유물산포지 4개소, 분묘유적 1개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¹⁾ 지표조사에서 파악된 사항들은 하남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유적들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전 신속한 후속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분묘와 석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금번 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장 경 호 (기전문화재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김 무 중 (기전문화재연구원 선임연구원)

조 사 원 : 정 해 득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유 병 린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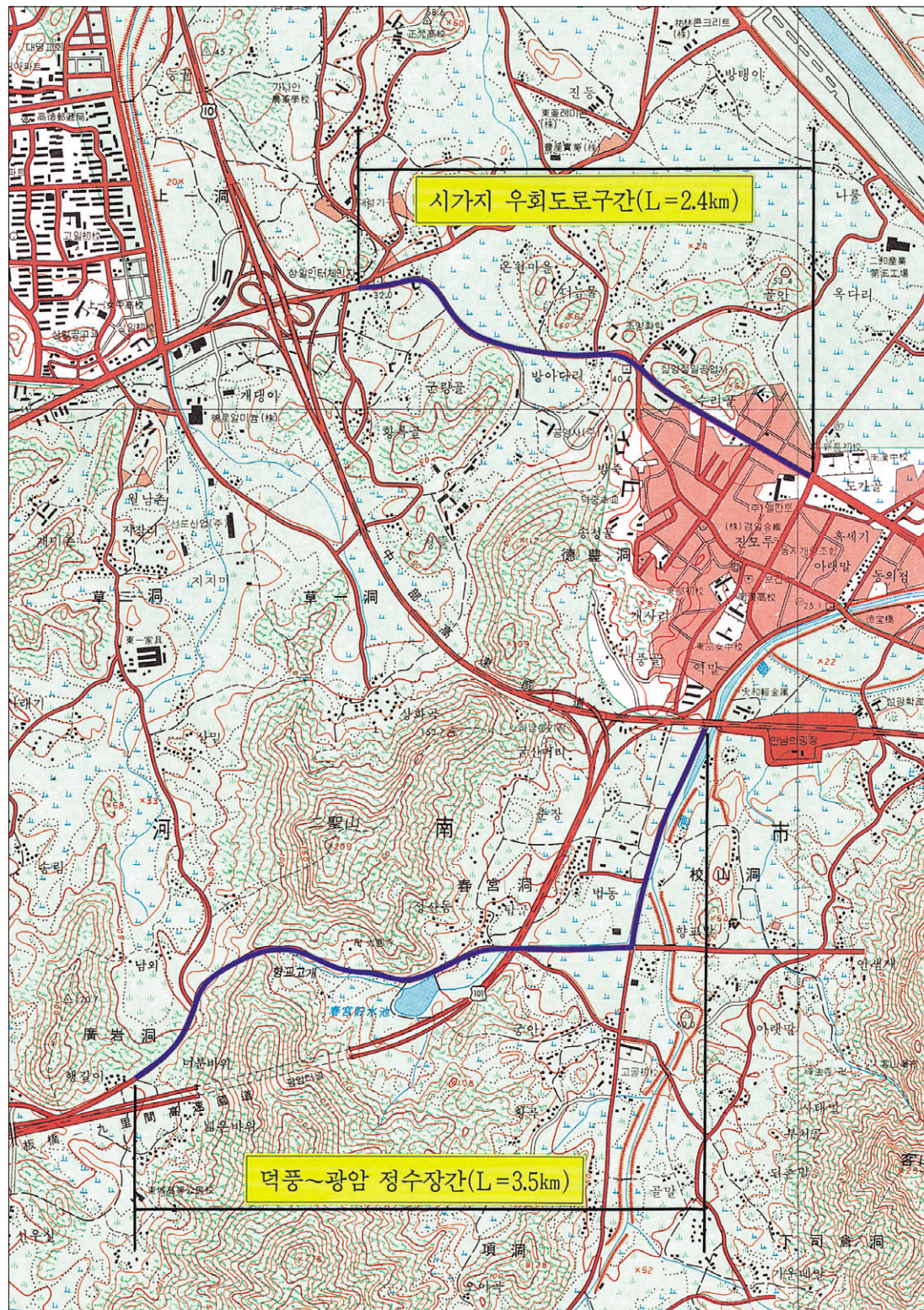
고 재 용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 진 수 정 (기전문화재연구원 조사보조원)

이 후 석 (숭실대학교 사학과 4년) 외

현지조사 및 보고서작성 작업은 장경호 원장의 지휘아래 김무중이 총괄하여 고고분야는 유병린과 고재용이, 분묘 및 유교분야는 정해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보고서 작성 중 현장사진은 유병린, 고재용,

1)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1999,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圖面 1. 調査地域 位置圖(1:25,000)



정해득이, 유물사진은 유병린, 유물의 세척과 마킹은 이후석, 김현, 유물의 실측과 제도, 편집은 진수정, 이승연(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졸업), 황선화(고려대학교 대학원생)가 담당했으며, 본문은 정해득, 유병린, 고재용이, 유물원고는 유병린이 작성하여 이를 김무중이 검토한 후 장경호가 최종 수정·가필하였다.

그리고 본 조사를 위해 하남시청 도로교통과 이철욱 계장님과 김현숙님이 행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었고, 또한 관련 자료를 협조하여 준 문화관광과 김창배 과장님, 김철수 계장님, 신우철 주사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Ⅱ. 周邊環境

1. 自然·地理的 環境

하남시는 지리적으로 동경 127° 17' 10"에서 127° 08' 29", 북위 37° 28' 00"에서 37° 34' 58" 사이에 위치한다. 동북쪽으로 한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으며, 시의 북서쪽은 서울특별시와 남서쪽은 성남시, 남동쪽은 광주군 그리고 북쪽과 북동쪽은 구리시,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남쪽에 위치한 청량산의 줄기가 V자형으로 감싸고 넓은 하곡지가 형성되어 있다.

하곡지를 흘러내리는 작은 하천이 한강 본류와 합류하는 부근에는 범람원 형태의 충적지가 발달되어 있고 지류하천 연안에는 퇴적물로 넓게 덮인 완경사의 충적지를 이루고 있다. 신장동, 풍산동, 망월동과 서울 강동구의 하일동에 걸친 지역에는 하안단구가 넓게 발달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하안단구는 인접한 범람원보다 약 3m 정도 높아 홍수시에도 침수되지 않으며 지역이 넓고 작은 하천의 開析을 받아 미약한 기복을 나타내기 때문에 충적지와 식별이 용이하지 않다.

고대에는 큰 강으로 직접 흘러드는 지류하천 지역이 인간 생활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한강 연안에는 남쪽의 청량산을 향해 깊숙하게 파고 들어간 하곡지의 산록에 고대 취락이 발달하고 그에 인접한 이성산에 산성이 축조된 것도 이 지역의 지형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하남시 지역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진 곳은 한강 주변의 풍화물 침식지형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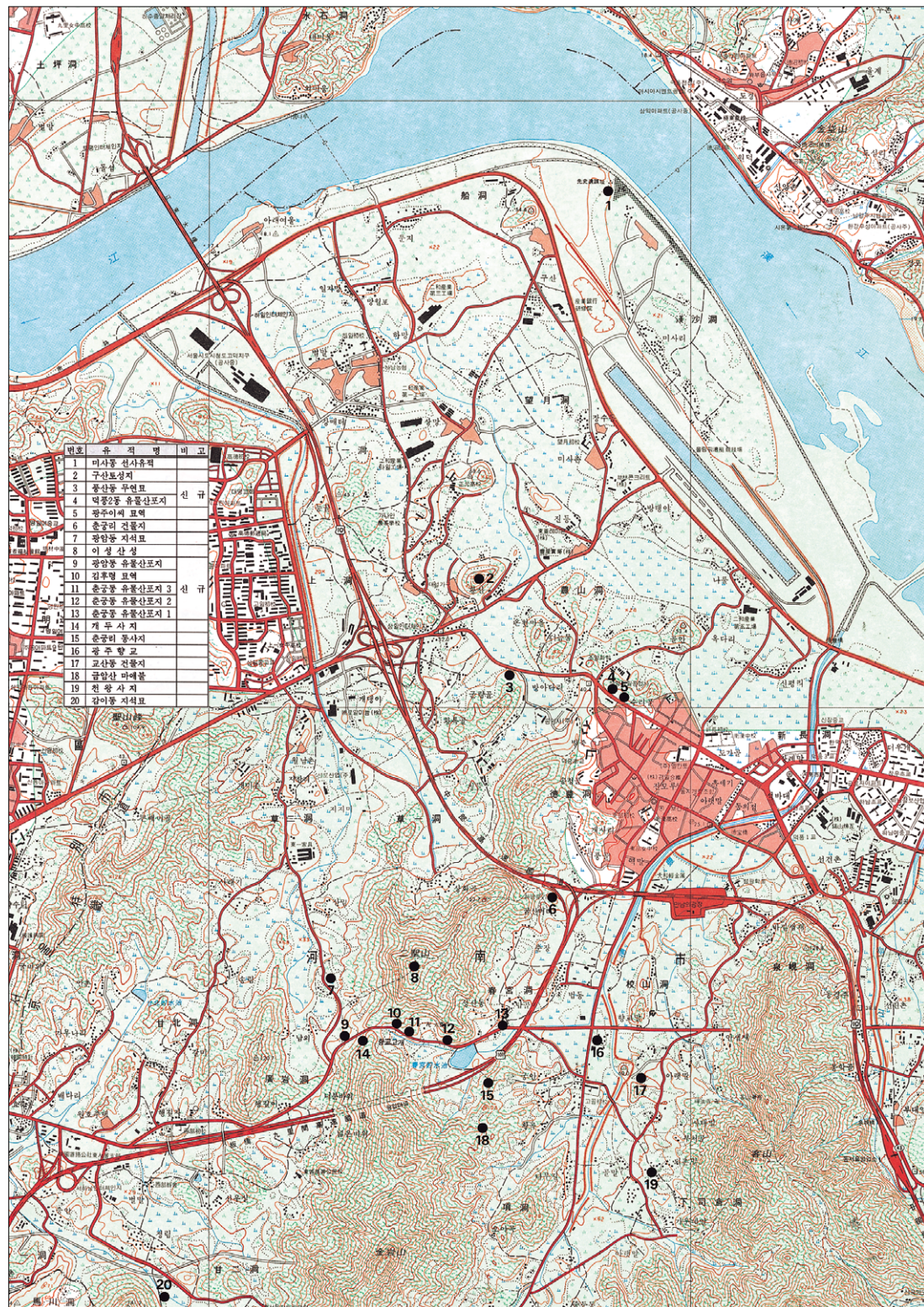
하남시의 총면적은 93.31km²이며, 11개 행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남시의 토지이용율은 1971년 고시된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98.4%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으로 인하여 도시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2. 考古學的 環境(도면 2)

서울의 남동부지역과 하남시 일대는 선사시대 이래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경기지역의 위치와 지형적 환경」, 『京畿地域의 郷土文化(上)』, pp.69.





圖面 2. 周邊遺蹟 分布圖(1:50,000)



다. 구석기시대³⁾의 유적은 하남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발굴 조사된 예가 없지만 미사리 선사 유적의 조사 과정에서 4기층이 조사된 예가 있어 향후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하남시에서 발굴 조사된 선사시대 유적 중 최고(最古)의 유적은 漢沙洞遺蹟⁴⁾을 들 수 있으며, 板橋~九里·新葛~半月間 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당시 廣岩洞 支石墓⁵⁾ 등이 조사된 예가 있다. 이밖에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는 德豐洞遺蹟⁶⁾, 望月洞遺蹟⁷⁾, 草一洞遺蹟⁸⁾, 北洞遺蹟⁹⁾, 甘二洞支石墓, 校山洞支石墓¹⁰⁾ 등이 있다.

미사동유적은 1960년 고 김원룡에 의해 신석기시대의 유적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래 수차에 걸쳐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79년 미사리 섬의 북쪽 일부가 사적 269호로 지정되었다. 그 후 1980년에는 사적지 일대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최근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적 일대의 江流幅을 확장하여 강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유적에 대한 구체발굴이 1987년부터 1992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3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에서 백제 시대에 걸친 유적이 조사되었다.¹¹⁾ 역사시대의 유적은 미사동유적에

3) 구석기시대는 인류가 유인원(類人猿)과의 공동조상으로부터 분리·진화하여 농경과 고기잡이 및 정착생활을 특징으로 하는 신석기시대 이전까지의 시기로 약 450만년 전부터 1만년 전까지의 기간이다. 구석기시대의 생업은 주로 사냥과 채집이었으며, 이에 유리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면서 생활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주요한 도구는 돌을 깨뜨려 만든 뎡석기(打製石器)이며, 때로는 나무나 뼈로 만든 도구도 사용되었다. 구석기문화는 뎡석기의 종류나 가공기술의 특징에 따라 전기(450만년~10만년 전), 중기(10만년~4만년 전), 후기(4만년 전~1만년 전)로 나뉜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구분은 프랑스 남부의 페리고드(Perigod)지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구석기문화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의미보다 문화적인 발전단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1996,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p. 10.

4) 漢沙里先史遺蹟發掘調査團·京畿道公營開發事業團, 1994, 『漢沙里 I~V』.

5)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1998, 『河南市 廣岩洞 支石墓』.

6) 김정학, 1967, 『韓國無文土器文化의 研究』 『白山學報 3』, pp.30~40, 서울.

7) 김정학, 주 7)의 전게서, pp.44~45.

8) 김원룡, 1965,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pp.5~6.

9) 김원룡, 주 9)의 전게서, pp.5~6.

10) 세종대학교박물관·하남시, 주 1)의 전게서, pp.50~51.

11) 미사동유적의 신석기시대 문화층은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의 토기양상은 口緣部에는 短斜線文이나 爪文, 點列文 등이 시문되고 구연부 아래에는 格子文이나 重弧文 등이 시문되고 胴體部와 底部에는 魚骨文이 시문된 토기가 주를 이룬다.

후기의 토기양상은 전면에 橫走魚骨文이 시문되거나, 구연부 중속문양대와 저부의 문양이 생략된 토기들이 주를 이루는데 구연부에는 점열문이나 押引文 계통의 문양이 주로 시문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구는 움집터 37기, 소형 저장공 34기 그리고 고상식가옥과 책열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움집터는 모두 방형 또는 장방형의 수혈주거지이다. 주거지 내부에는 노지와 기둥구멍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닥은 점토다짐과 모래층을 그대로 사용한 2가지의 경우가 있다.

출토유물로는 토기와 석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토기는 深鉢形土器, 壺形土器, 小形土器, 紅陶, 黑陶, 突帶刻目土器 등이 있으며, 석기는 磨製石劍, 石鏃, 半月形石刀, 石斧, 石鑿, 石, 漁網錘, 紡錘車, 針 등 출토되었다.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수혈주거지와 고상식가옥, 저장공이 있다. 원삼국시대의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타)원형, (장)방형, 凸자형, 呂자형 등 4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주거지 내부의 시설로는 부석형 노지와 화덕을 들 수 있으며, 부석식 노지와 함께 원시적인 온돌형태의 시설이 조사된 예도 있다.

모든 형태의 주거지 내부에서는 이른바 硬質無文土器 外反口緣壺가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凸자형과



서 조사된 예가 있는 백제시대 유적은 대략 5세기경의 것으로 편년되고 있으며, 二聖山城¹²⁾, 校山洞 建物址遺蹟¹³⁾, 春宮里 建物址 遺蹟¹⁴⁾, 天王寺址¹⁵⁾, 桐寺址¹⁶⁾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墳墓群으로는 客山古墳群, 金岩山古墳群이 보고되어 있다.¹⁷⁾

Ⅲ. 調査内容

조사는 원활한 조사진행과 기록의 편의를 위하여 덕풍동 현대아파트~교산사거리까지의 구간을 Ⅰ 구간, 교산사거리~춘궁저수지까지의 구간을 Ⅱ 구간, 춘궁저수지~광암정수장까지의 구간을 Ⅲ 구간으로 세분하여 실시하였다. (도면 3)

1. Ⅰ 구간

가. 구간현상 (도면 4, 사진 1~4)

덕풍동 현대아파트에서 교산동 사거리까지 약 1km구간은 복토되어 형질이 변경된 상태이다. 덕풍천을 중심으로 도로의 양쪽은 논으로 경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확장예정지인 동쪽은 주유소, 음식점, 민가들이 들어서 있고 대부분 논, 밭으로 경작중이다. 천현주유소 옆 매립지에서는 자기편과 도기편이 확인되었으나, 그 양이 많지 않고 밀집도가 낮았으며 유적의 존재유무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매립지 옆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도로와 연결된 농로 건너편 지역은 형질이 변경되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지표면에서 연결토기편, 자기편 및 기와편이 상당수 채집되었고, 도로변에는 ‘춘궁리궁지’라는 표석이 있다.(사진 5) 교산사거리까지의 도로좌우편 구간은 현재 음식점을 비롯하여 건물이 들어서 있고, 덕풍천변은 하천의 범람에 대비한 제방이 1~1.5m가량 쌓여 있다. 도로의 동쪽은 건물과 건

묘자형주거지에서는 회색의 打捺文土器와 鐵器가 공반되고 있다.

백제시대 유구는 최상층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원형, 타원형, 말각장방형, 방형 그리고 출입구가 부가된 육각형 등으로 구분된다. 주거지 외에 저장공과 고상식가옥 등이 있는데, 저장공은 평면 원형과 방형의 두가지가 있으며, 백제시대의 밭이 최초로 조사되었다.

서울대학교박물관, 1997,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유물도록』 pp.47~48.

12) 한양대학교박물관 · 경기도 · 하남시, 1987~2000, 『二聖山城 1~8次 發掘調査 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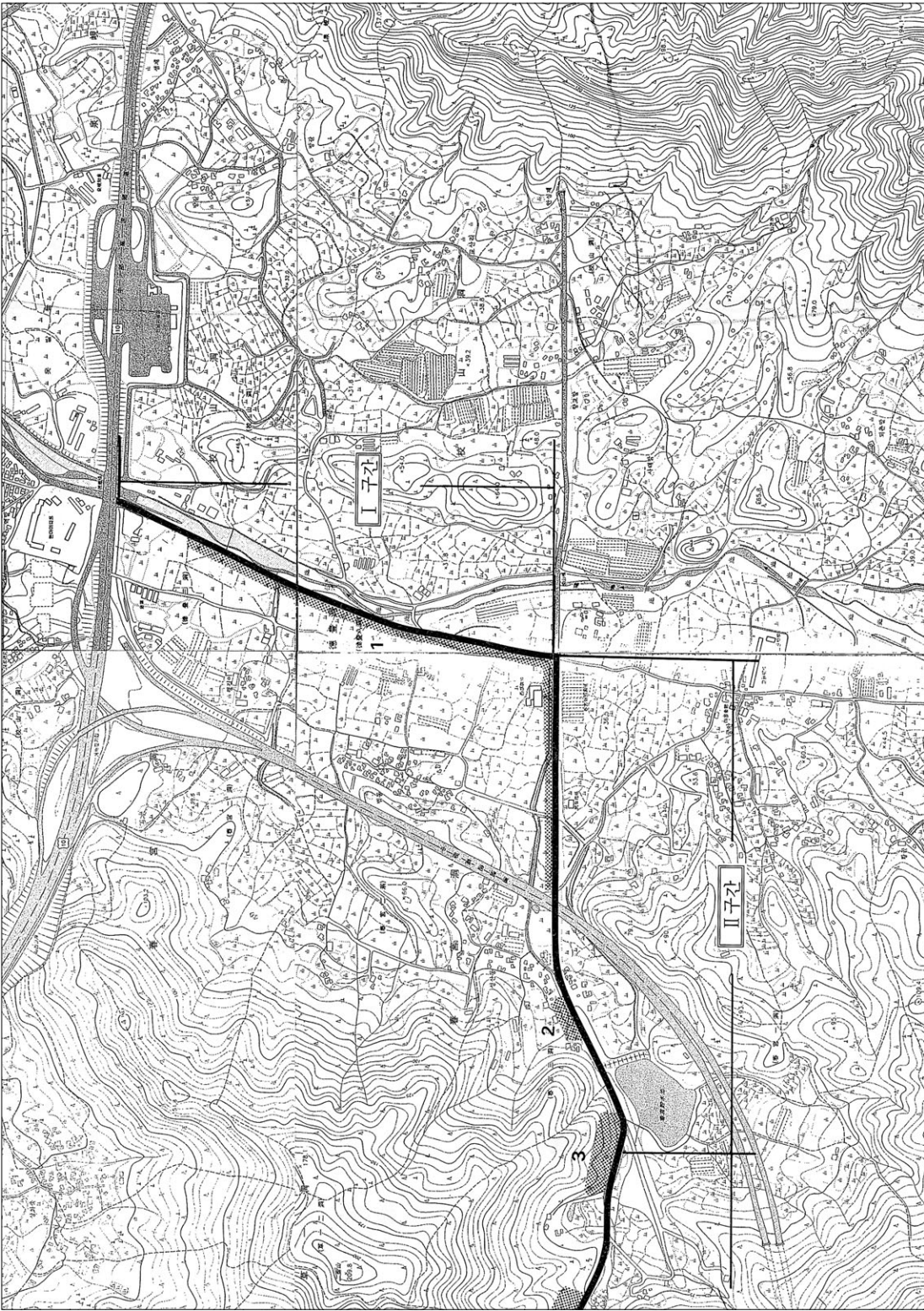
13)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 河南市, 2000, 「河南 校山洞 建物址 發掘調査 指導委員會議資料」.

14) 忠北大學校博物館 · 京畿道, 1988, 『板橋~九里 · 新葛~半月間 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pp. 313~454, 서울.

15)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2000, 「河南市 下司倉洞 天王寺址 隣接地域 緊急 試掘調査 略報告書」.

16) 충북대학교박물관 · 경기도, 주 4)의 전게서, pp. 101~161.

17) 세종대학교박물관 · 하남시, 주 1)의 전게서, pp. 74~89.



圖面 3. 調査現況圖(1:10,000)



圖面 4. I 區間 現況圖(1:5,000)

물사이에 약간의 경작지가 확인되는데 지표상에서 유물이나 기타 유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산사거리를 중심으로 이성산성, 광주향교 및 교산동건물지 등 많은 문화유적이 분포하는 지역으로서 유적의 존재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도로확장구간에 포함된 지역은 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II 구간

가. 현 상 (도면 7, 사진 6·7)

본 구간은 교산동 사거리에서 춘궁저수지까지의 약 1km구간으로서 북서쪽의 이성산과 접해 있고,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유물산포지 6'이 포함된 구간이다. 교산사거리에서 이성산성 방향으로 도로북편은 서부농협,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한 남쪽은 노변아래 경작지에서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 노변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은 이미 매립되어 지표상에서 유물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京畿道博物館에 의해 실시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지역내 발굴조사 구역과 한양대학교에서 연차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성산성이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굴조사가 요망되는 지역이다.

고속도로 교각부를 지나 이성산성 입구를 지나면 '토방'이라는 일반음식점 옆으로 소규모 경작지가 있으며, 연질토기편과 이성산성 출토유물과 같은 형태의 連續馬蹄形文, 點線文, 扇狀文¹⁸⁾ 계열의 인화문토기편이 지표에서 확인된다. 이 유물들은 이성산성에서 흘러내린 유물일 가능성도 있으나 유물의 수량과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미루어 하부에 유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도로구간으로 편입 될 경우 우선적으로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 위쪽의 도로변에는 이성산의 절개지가 나타나는데 이 능선에서 이장된 묘광이 몇 기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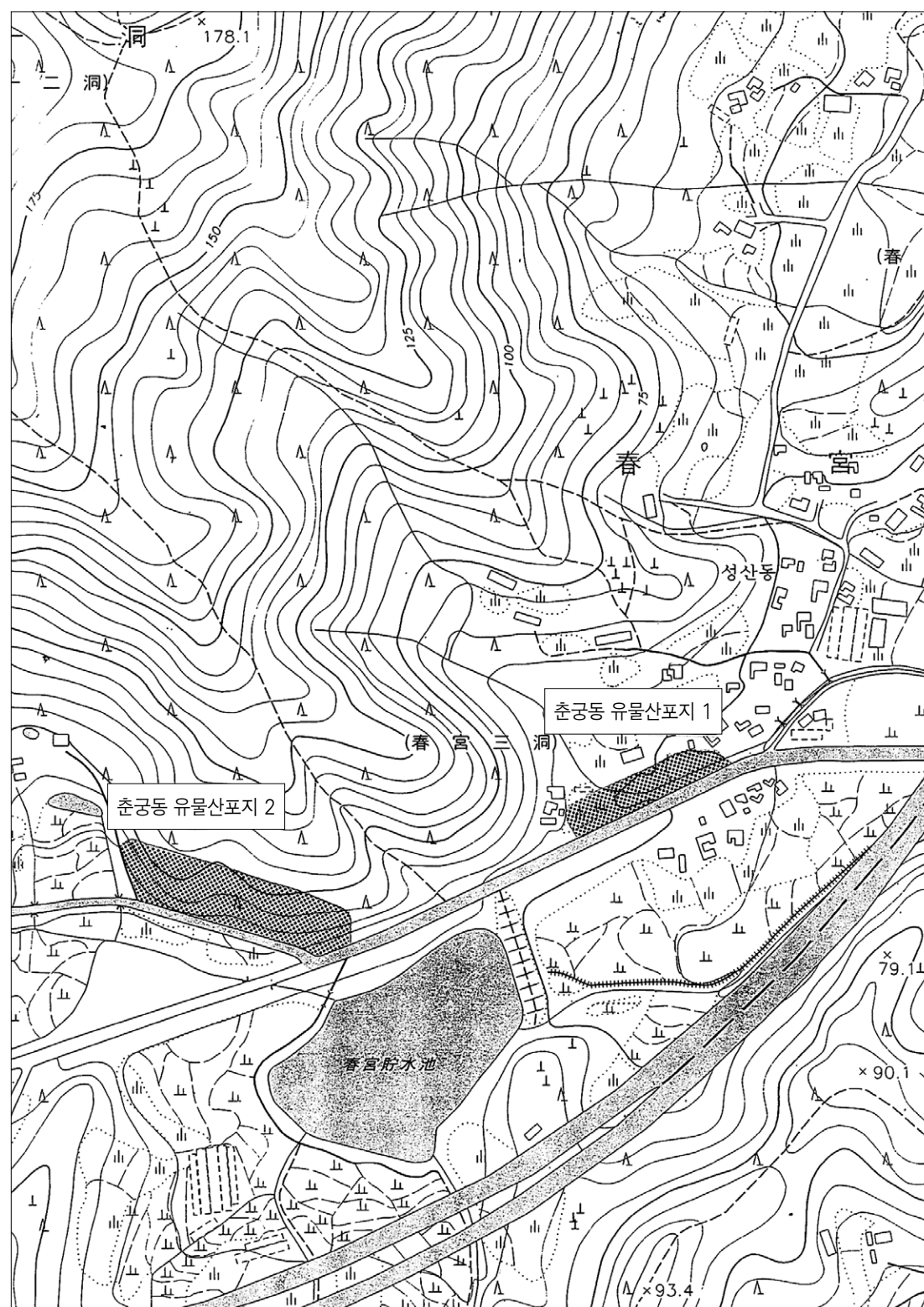
이 일대에서 토기편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도로확장부가 이곳을 포함하게 될 경우 이 역시 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고고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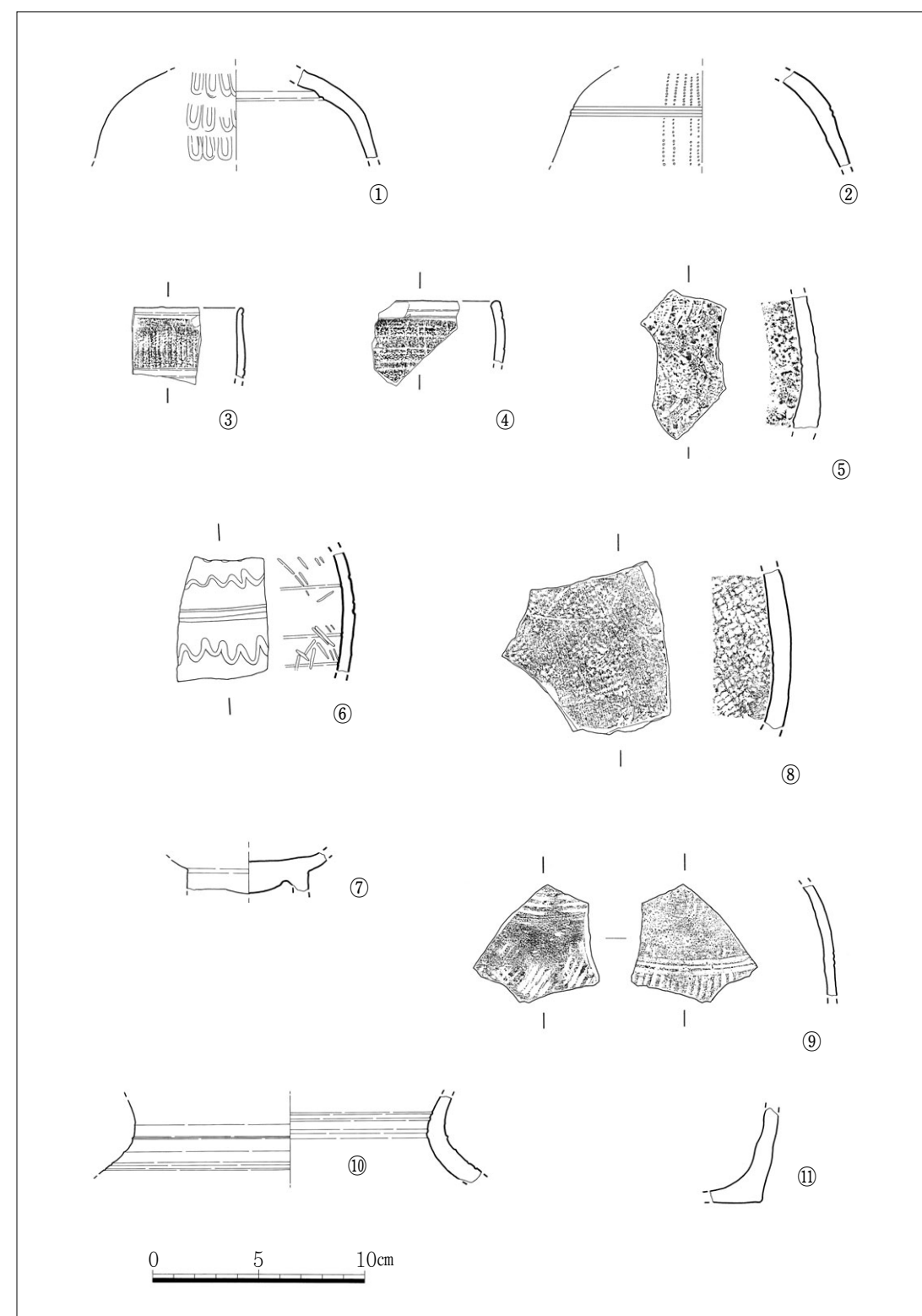
(1) 춘궁동 유물산포지 1(도면 5, 사진 8)

- 소재지 : 춘궁3동 산 34번지 일대
- 시 대 : 통일신라 ~ 근대
- 종 류 : 산포지

18) 문양의 분류는 이성산성 3차 발굴조사 보고서의 분류안을 따랐다.
漢陽大學校博物館·京畿道, 1991,『二聖山城-3次發掘調査 報告書』, p. 437.



圖面 5. II 區間 現況圖(1:5,000)



圖面 6. II 區間 收拾遺物

□ 내 용 :

교산사거리에서 서하남 IC방향으로 이동하다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암거를 지나 오른쪽의 이성산성 표지판과 연결한 도로가의 밭이다. 주변지역은 각종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4~5년 전에 일부 복토하였다는 주민의 전언이 있었다. 현재 상추, 고추 등의 작물이 심어져 있다. 지표에서 수습된 유물은 통일신라기의 토기 뚜껑편, 인화문토기편 등이 있다. 면적은 약 100평 정도이다.

① 토기 뚜껑편(도면 6-①, 사진 8-①)

손잡이부분부터 아래쪽으로 3열의 문양이 확인된다. 모두 동일한 문양으로 이른바 連續馬蹄形文이다. 마제형은 내·외 2조의 선을 1쌍으로 하고 있는데 시문(施紋)할 때에 공간 분할을 잘못하여 부분적으로 문양이 중첩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선은 매우 날카로운 도구로 좌측을 수직으로 그어 내린 후 우측을 J자 형태로 끝을 구부려 완성하였다. 태토는 매우 정선된 점토이며 회전 성형하였고, 소성은 매우 양호하다. 내·외면 모두 회청색, 단면은 자색이다. 이성산성에서 출토되고 있는 고배류의 뚜껑과 동일한 형식이다. 잔존높이 : 4.2cm

② 토기 뚜껑편(도면 6-②, 사진 8-②)

손잡이부분과 드림은 파손되었으며, 동체부의 일부만이 남아있다. 點列文(短線形)이 2열 확인된다. 문양의 사이에는 2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외면에 11치구로 종방향의 문양을 찍었으며, 굴곡차이에 의해 문양의 깊이는 서로 다르다. 매우 정선된 점토를 이용하여 성형하였으며, 소성은 양호한 편이나 부분적으로 기포가 보인다.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띤다. 잔존높이 : 4.5cm

③ 인화문토기 구연부편(도면 6-③, 사진 8-③)

약간 외반된 구연으로 구순부는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외면에는 구순과 접하여 1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고, 그 아래에 2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14치구의 종방향 점열문(단선형)이 침선을 돌린 후 침선사이에 0.2~0.3cm 정도의 간격으로 찍혀 있는데 외면의 굴곡차이에 의해 문양의 깊이는 상이하다. 매우 정선된 점토로 성형하였으며, 소성은 아주 양호하다.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띤다. 잔존길이 : 3.6cm, 기벽두께 0.4cm

④ 인화문토기 구연부편(도면 6-④, 사진 8-④)

구연은 미세하게 외반하고 있으며, 구순부는 내면에서 외면으로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구진에는 2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고, 그 하단에 다시 2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문양은 16치구를 이용하여 종방향의 점열문(단선형)이 불규칙하게 시문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침선과 겹친 양상을 보인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되지 않았으며, 침선이나 시문된 문양으로 볼 때도 조잡하다.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고 있다. 잔존길이 : 3.95cm, 기벽두께 : 0.4~0.5cm

⑤ 인화문토기 동체부편(도면 6-⑤, 사진 8-⑤)

동체부 일부만이 남아있다. 하부로 내려올수록 기벽이 두꺼워진다. 외면에는 2열의 선상문(扇狀文)이 확인되며,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다. 문양은 13치구를 사용하여 종방향으로 찍었다. 내면에는 격자의 내박자흔이 보인다. 태토는 비교적 정선된 점토이며, 외면은 회색, 단면과 내면은 회청색이다. 잔존길이 : 6.8cm, 잔존폭 : 3.8cm

⑥ 인화문토기 동체부편(도면 6-⑥, 사진 8-⑥)

외면에는 2열의 파상문이 보이며, 파상문 사이에는 2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문양은 좌→우 방향으로 V자 형태를 중복 시문하였다. 내면에는 회전물손질과 내박자흔이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길이 : 5.8cm, 기벽두께 : 0.5cm

⑦ 경질고배 대각편(도면 6-⑦, 사진 9-①)

회청색 경질의 단각고배편으로 추정된다. 대각은 거의 파손되었으며 외면에 부분적으로 자연유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배신과 대각의 연결부에는 1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소성은 매우 양호하다. 내·외면은 회청색을 띠며, 단면은 암자색을 띤다. 잔존높이 : 1.9cm

⑧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⑧, 사진 9-②)

내·외면 모두 격자 타날되어 있다. 외면은 격자타날한 후 희미하게 1조의 침선을 횡으로 돌린 후 물손질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띤다. 잔존길이 : 8.0cm, 기벽두께 : 0.8~0.9cm

(2) 춘궁동 유물산포지 2(사진 11)

□ 소재지 : 춘궁동 산 39-1번지 일대

□ 시 대 : 통일신라 ~ 근대

□ 종 류 : 산포지

□ 내 용 :

이성산성에서 춘궁저수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있는 가지능선의 끝부분으로 도로 개설시에 절토되었다. 유물은 절토면의 상부에서 주로 수습되었지만 지표는 풍화암반층이 노출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통일기의 도·토기편이다.

① 경질토기 동체부편(도면 6-⑨, 사진 12-①)

외면에는 종방향으로 선문을 타날한 후 횡방향으로 3조의 침선을 돌렸다. 내면에는 박자흔이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띤다.

잔존길이 : 5.1cm, 잔존폭 : 5.5cm

② 경질토기 경부편(도면 6-⑩, 사진 12-②)

외면에는 1조의 돌대가 돌려져 있고, 돌대 하부에는 2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내면에도 1조의 침선이 돌려져 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내·외면은 회청색, 단면은 자색을 띤다. 소성은 매우 양호하다. 잔존길이 : 4.0cm, 잔존두께 : 0.5~0.95cm

③ 경질토기 저부편(도면 6-⑪, 사진 12-③)

평저이며 일부만이 남아있다.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단면은 화도차이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색을 띤다. 소성도는 양호하다. 잔존높이 : 4.4cm

(3) 춘궁동 유물산포지 3(도면 7, 사진 13·14)

- 소재지 : 춘궁동 산39-1번지 일대
- 시 대 : 통일신라 ~ 근대
- 종 류 : 기와산포지
- 내 용 :

이성산성의 정남쪽, 춘궁저수지의 북서쪽 능선의 경사면이다. 도로의 북측에는 산성주유소가 위치한다. 도로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지역인데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석축이 확인되며, 석축의 상면은 평탄대지이다. 전체면적은 약 300평 정도이며, 평탄대지의 북쪽에는 대형 민묘 1기가 있다. 수습유물로는 약간의 통일신라기 토기편과 기와편이 있다. 기와편은 역시 통일신라기의 것으로 생각되는 선조문 계열이 주류이다.

① 암키와편(도면 8-①, 사진 15·16-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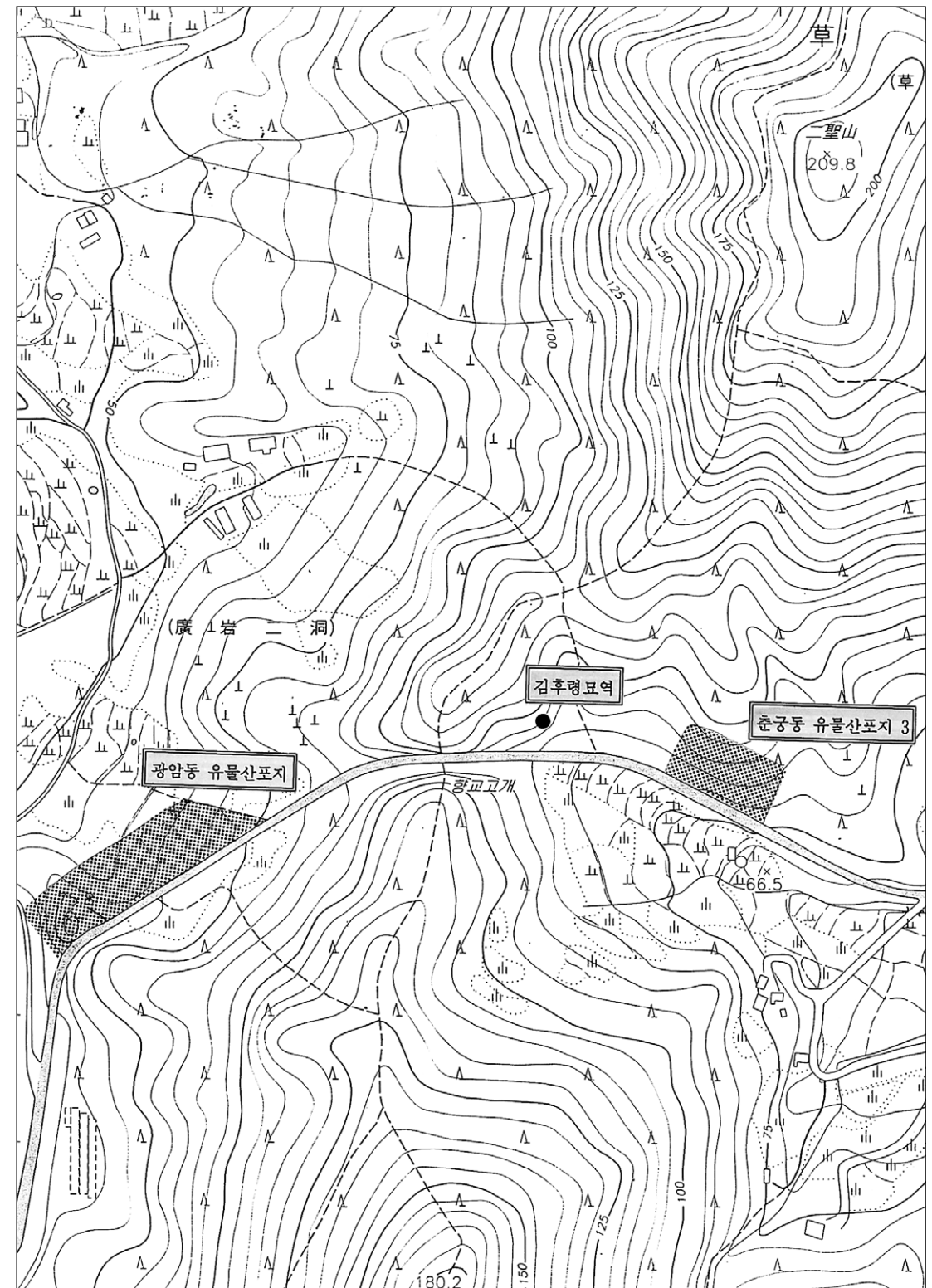
등면에 사선방향으로 선조문이 뚜렷하게 타날되어 있다. 내면 마포는 최대폭 0.15cm 내외로 균일하게 짝 천을 사용하였다. 와도는 내→외 1/2가량을 한번에 그었다. 적갈색을 띠며, 태토는 운모가 다량 포함된 세사립이 섞인 정선된 점토이다. 잔존길이 : 7.4cm, 최대두께 : 1.95cm

② 암키와편(도면 8-②, 사진 15·16-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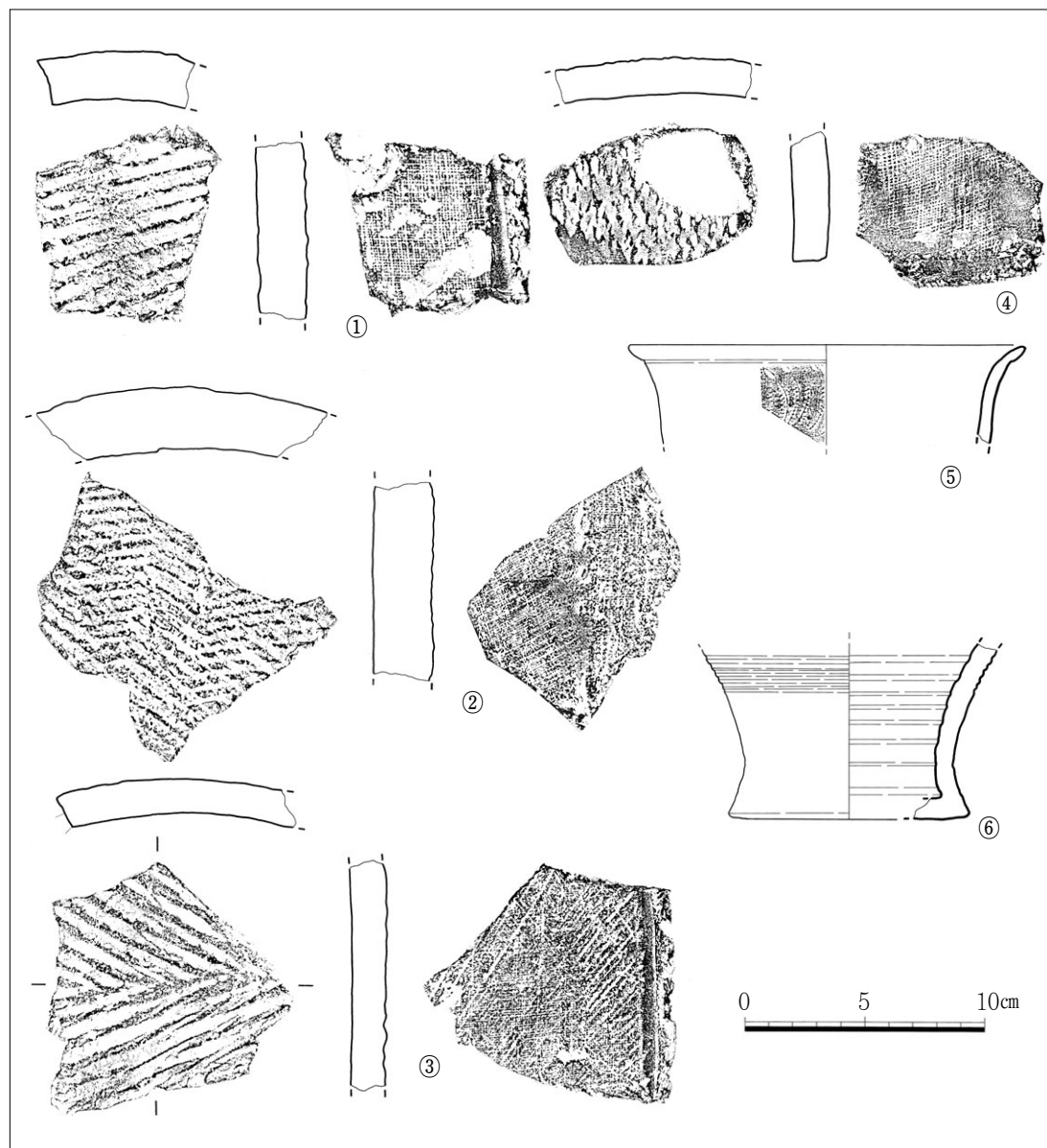
등면에는 사선 방향의 선조문을 타날한 후 대각선방향으로 겹쳐 타날하였다. 문양의 중복이 심하여 종주어골문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내면에는 폭 0.15cm 내외의 마포흔이 정연하게 남아있으며, 종방향의 결합한 합포흔이 있다. 정선된 점토에 굵은 석립과 세사립이 혼입된 태토를 사용했으며, 전체적으로 적갈색을 띤다. 잔존길이 : 8.3cm, 최대두께 : 2.5cm

③ 암키와편(도면 8-③, 사진 15·16-③)

등면에는 횡방향으로 선조문을 상하 서로 대치되게 타날하게 횡주어골문과 같은 양상이다. 내면에는 0.1cm 내외의 마포흔이 정연하게 확인되며,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와도는 내→외방향으로 1/2가량 그었다. 태토는 굵은 석립과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다. 전체적으로 회청색을 띠며, 단면은 부분



圖面 7. Ⅲ區間 現況圖



圖面 8. Ⅲ區間 收拾遺物

적으로 자색을 띤다. 잔존길이 : 9.0cm, 최대두께 : 1.48cm

④ 암키와편(도면 8-④, 사진 15·16-④)

등면에는 종방향으로 승석문을 타날하였으며, 내면에는 마포흔이 정연하게 남아있다. 내면은 종방향 물손질로 마포흔이 부분적으로 지워졌다. 미구가 확인되는데 단면에 깨끗하게 절단하였다. 태토는 소량의 운모가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다른 와편에 비해 정선되었다. 전체적으로 회백색을 띠나, 단면은 화도의 차이로 흑색을 띠고 있다. 잔존길이 : 5.1cm, 최대두께 : 1.5cm

3. Ⅲ구간

가. 현 상 (도면 7, 사진 17)

춘궁저수지에서 광암정수장까지 약 1.5km구간으로 향교고개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향교고개는 이성산(209.8m)에서 남쪽으로 뻗은 가지능선과 금암산(322m)에서 북쪽으로 뻗은 가지능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향교고개에서 광암정수장까지의 도로북편으로는 단을 이룬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도 인화문토기편 및 도기저부편 등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금암산 능선 하단부에 와편이 산재된 지역이 확인되는데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고한 개두사지로 추정된다. 공사구간으로 편입될 경우 사전 시굴조사가 필요하다.

나. 고고유적

(1) 광암동 유물산포지(사진 18)

- 소재지 : 광암동 148번지 일대
- 시 대 : 통일신라 ~ 근대
- 종 류 : 산포지
- 내 용 :

광암정수장에서 초이동 방향으로 조성된 신설도로의 오른편, 향교고개 방향의 개간된 밭지역으로 이성산의 남서쪽 경사면에 해당한다.(사진 19) 개간된 밭은 사면을 따라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밭의 곳곳에는 거석들이 산재해 있다.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한 광암동 지석묘군은 이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400m가량 떨어져 있다. 전체적인 지질은 다량의 마사토에 약간의 점성을 띠고 있고, 그 아래는 암반층이다. 지표에서 통일신라기에서 근대에 이르는 토기편이 수습되었다.

① 인화문토기 구연부편(도면 8-①, 사진 20-①)

경부에서 구연부로 올라가는 부분으로 약간 외반되어 있다. 외면에는 선상문이 동체부에서 구연부쪽으로 시문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소성은 매우 양호하다. 내·외면은 회청색, 단면은 자색을 띤다. 잔존높이 : 4.0cm, 복원구경 : 16.2cm

② 병 저부편(도면 8-②, 사진 20-②)

저부의 일부만이 남은 것을 도상복원하였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올라가면서 약간 내경하다가 약 80°의 각도를 이루면서 급격하게 벌어진다. 외면 동체의 중하위에서 6조의 침선이 확인되며, 내면에는 8줄의 회전조정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내·외면은 회청색, 단면은 자색을 띤다. 잔존높이 : 7.2cm, 복원저경 : 10.0cm

다. 분묘유적

(1) 김후령(金厚令) 묘역(사진 21·22)

- 소재지 : 춘궁동 산39-1번지 일대
- 시 대 : 조선
- 종 류 : 분묘 및 석물
- 내 용 :

향교고개 정상부 북쪽 가지능선 하단부에 위치한다. 묘비는 전면에 “密陽孫召史 右(우)通政大夫金海金厚令之墓(좌)” 각자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子以奉(우) 乾隆二年丙辰二月日立(중) 世奉(좌)라고 되어 있다.

봉분은 단봉합장묘이며, 석물은 묘표와 상석 그리고 향로석이 있다. 묘표는 원수형(圓首形)으로 총 높이 76cm이다. 묘의 건립연대는 후면에 있는 묘비의 기록으로 보아 1736년(영조12)이다. 부인 밀양 손씨의 호칭을 소사(召史)라고 칭한 것과 조선시대 사대부의 분묘 조영시에 청나라의 연호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묘는 조선후기 중인계층의 묘로 판단된다. 이 분묘는 영조대의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구간에 포함될 경우 관련전문가가 입회하여 분묘개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調查團 意見)

이번 조사에서는 총 4개소의 유물산포지와 1개소의 분묘가 확인되었다. 유물산포지는 통일신라기의 인화문토기 산포지가 4개소이다. 이 외에도 근대의 유물만 채집되는 5개소에 대하여는 후속조사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보고에서는 제외하였다. 특히 산포지가 밀집되어 확인되는 곳은 이성산성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능선들이다.

아울러 현재 논과 밭으로 경작되고 있고, 도로에 연결한 덕풍동~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의 구간은 ‘춘궁리궁터’와 ‘광주객사’의 위치로서 고대부터 광주부 고읍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므로 유물이 채집되지 않았더라도 2×8m의 트랜치를 3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층위상황과 유적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유적들은 원래의 지형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우거져 있어 정확한 분포범위를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공사범위에 포함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유적의 존재유무와 범위 확인, 그리고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시굴조사 및 후속조치가 필요한 6개의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시굴조사 및 후속조치 필요지점 내역

연번	유 적 명	시 대	소 재 지	면 적	향 후 방 안	비 고
1	춘궁동 유물산포지 1	통 일 신 라	춘궁동 산34번지 일대	약 300평	정밀시굴조사	
2	춘궁동 유물산포지 2	통일신라~근대	춘궁동 산39-1번지 일대	약 1,000평	정밀시굴조사	
3	춘궁동 유물산포지 3	통 일 신 라	춘궁동 산39-1번지 일대	약 1,000평	정밀시굴조사	
4	광암동 유물산포지	통일신라~근대	춘궁동 산148번지 일대	약 2,000평	정밀시굴조사	
5	김후령 묘역	조 선	춘궁동 산39-1번지 일대	약 30평	분 묘 개 장	입회
6	덕풍동~고속도로구간	통일신라~조선	덕풍동, 춘궁동	편입구간	30m간격 시굴	

이상의 6개 지점 중 유적의 밀집도가 높은 교산사거리에서 광암정수장 구간의 이성산 자락 역시 도로 공사 시행 전 정밀시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외 세종대학교박물관에서 확인한 유물산포지 6지점 또한 현재는 복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하층에 유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므로 공사구간에 편입시 정밀시굴조사를 시행 후 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寫真



사진 1. I 區間 全景(南→北)



사진 2. I 區間 近景(南→北)



사진 3. I 區間 全景(北→南)



사진 5. I 區間內 “춘궁리궁지” 標石



사진 4. I 區間 近景(北→南)



사진 6. II 區間 全景(1)(東→西)



사진 7. II 區間 全景(2)



사진 8. 春宮洞 遺物散布地 1 全景(西→東)



사진 9. 春宮洞 遺物散布地 1 收拾遺物(1)



사진 10. 春宮洞 遺物散布地 1 收拾遺物(2)



사진 11. 春宮洞 遺物散布地 2 全景



사진 13. 春宮洞 遺物散布地 3 近景



사진 12. 春宮洞 遺物散布地 2 收拾遺物



사진 14. 春宮洞 遺物散布地 3 遺物露出 狀態



사진 15. 春宮洞 遺物散布地 3 收拾遺物(前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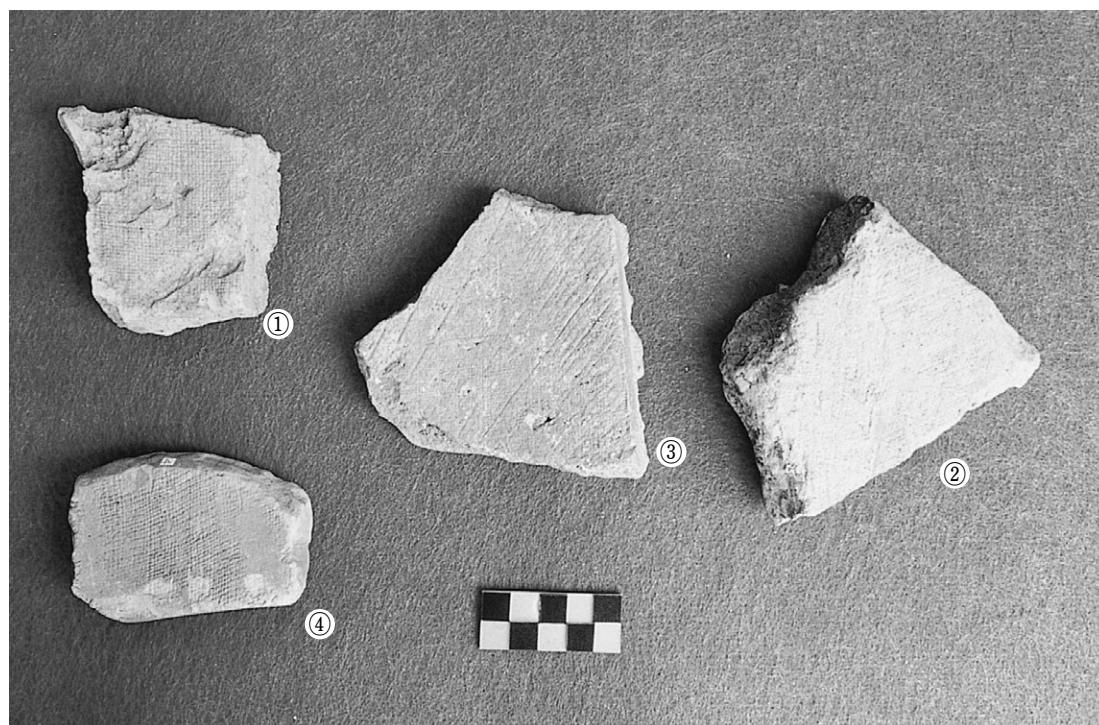


사진 16. 春宮洞 遺物散布地 3 收拾遺物(後面)



사진 17. Ⅲ 區間 全景



사진 18. 廣岩洞 遺物散布地 全景(南西 → 北東)



사진 19. 郷校고개 全景



사진 21. 金厚令 墓域 全景



사진 20. 廣岩洞 遺物散布地 收拾遺物



사진 22. 金厚令 墓標

調查報告書 抄錄

報 告 書 名	河南 德豐-廣岩淨水場間 道路 擴・鋪裝工事區間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發 行 日	2000年 7月 22日
發 刊 機 關	名 稱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住 所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TEL	(031)258-5105	FAX	(031)258-7116	
執筆・編輯者	張慶浩, 金武重, 丁海得, 俞炳隣, 高在塔, 陳秀晶				
調 查 緣 由	上一IC와 河南新시가지를 연결하는 기존 道路의 확포장공사로 인해 破壞의 憂慮가 있는 埋藏文化財의 確認과 後續措置를 위한 基礎資料提供				
調 查 擔 當 者	金武重, 丁海得, 俞炳隣, 高在塔				
遺 蹟 所 在 地	京畿道 河南市 豐山洞, 德豐洞 一帶				
調 查 面 積	路線延長 2.4km 구간 (L=3.5km)				
遺 蹟 種 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遺物散布地 廣州李氏墓域	青銅器～高麗 朝鮮	4個所 1基	印花紋土器片 外 墓標		

學術調査報告 7冊 河南 德豐-廣岩淨水場間 道路擴・鋪裝工事區間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2000年 7月 22日 印刷 2000年 7月 22日 發行 編 輯：畿甸文化財研究院 調査2팀 發 行：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 京畿道 水原市 長安區 長安洞 2-6 ☎ 031)258-5105, fax 031)258-7116
印刷處：京畿出版社 住 所：水原市 八達區 人溪洞 1122-11 ☎ 031)231-5520～7, fax 031)231-5519

(비매품)